

교회사 II · CHURCH HISTORY II

이신칭의와 종교개혁의 발발

Justification by Faith and the Outbreak of the Reformation

주교재 셸리 『현대인을 위한 교회사』 25장 (제5부 종교개혁의 시대)

부교재 곤잘레스 『종교개혁사』 · 마크 놀 『터닝 포인트』

담당교수 Chang Lee, Ph.D.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e and Seminary

강의 소개

이번 주 학습 목표



한 수도사의 고뇌

루터는 왜 하나님을 '미워한다'고까지 말했는가? 그의 실존적 구원의 물음을 추적한다.



이신칭의의 발견

로마서 1:17의 '하나님의 의(iustitia Dei)'를 루터는 어떻게 새롭게 이해했는가?



95개조와 운동의 촉발

왜 하필 1517년 독일이었는가? 그 배후의 돈과 정치까지 함께 본다.



오늘의 적용

'오직 믿음(sola fide)'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목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번 주 강의의 흐름

종교개혁의 촉발(triggering)

I

역사적 배경

네 질문 · 중세말 위기 · 면죄부 · 돈의 흐름

II

루터의 여정

한 수도사의 고뇌에서 '탑의 체험'까지

III

이신칭의

로마서 1:17 — 하나님의 의를 다시 읽다

IV

운동의 발발

95개조 · 라이프치히 · 세 소책자 · 보름스

V

그 이후

바르트부르크의 융커 게오르크, 그리고 오늘

도입

오늘의 한 문장

흔히 하는 오해

“중세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러나 부패는 그 이전에도 늘 있었다 — 부패만으로는 1517년이 설명되지 않는다

→ 도덕의 문제로만 보면, 정작 신학이 보이지 않는다

루터가 실제로 붙들린 물음

“나는 구원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문제는 확신(certitudo)의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였다

→ 부패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론(soteriologia)의 문제

종교개혁의 triggering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95개조 논제:

네 가지 핵심: core points:

학술 문서였다 — 라틴어로 썼고, 대학 관례에 따라 토론을 청하는 글이었다.

결론이 아니라 명제(theses)였다 — “이렇게 결론지었다”가 아니라 “이것을 함께 따져 보자”였다.

교회를 떠날 뜻이 없었다 — 이때 루터는 자신을 충실한 가톨릭 신학자로 여기고 있었다.

표적은 면죄부 판매 하나였다 — 교황권도 성례도 아직 건드리지 않았다.



라틴어 원제

*Disputatio pro declaratione
virtutis indulgentiarum*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을 밝히기 위한 논제」(1517)

그런데 이 조용한 학술 문서가 유럽 전체를 흔들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이 오늘 강의의 줄거리다.

길잡이

이 사건을 여는 네 개의 물음

① 왜 하필 1517년인가

중세 말의 위기 — 아비뇽 유수, 서방 교회 대분열, 흑사병, 오컴 유명론(via moderna)이 한 지점으로 모인다.

② 면죄부는 무엇을 약속했는가

형벌(poena)의 면제이지 죄책(culpa)의 사면이 아니었다. 근거는 공로의 보고(thesaurus meritorum) 교리.

③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갔는가

마인츠 대주교직 → 푸거 은행의 대출 → 면죄부 판매 → 수익의 절반은 로마, 절반은 은행.

④ 왜 유럽 전체가 흔들렸는가

한 수도사가 하나님의 의(iustitia Dei)를 다시 읽었고, 인쇄술이 그 글을 유럽 전역에 실어 날랐다.

역사적 배경 I

프로테스탄티즘이란 무엇인가?

트뢰치(Ernst Troeltsch): 프로테스탄티즘을 '가톨릭의 변형(a modification of Catholicism)'
가톨릭의 문제는 그대로 남았고, 다른
답이 주어졌다.

1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How is a person saved?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 이번 주 핵심

2

종교적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Where does religious authority lie?

교황·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3

교회란 무엇인가?

What is the church?

성직 위계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공동체

4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What is the essence of Christian living?

수도적 공로가 아니라 소명 안에서의 섬김

역사적 배경 II

불꽃이 튀기 직전: 1517년의 유럽

교회의 세속화

면죄부(indulgence)가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자금 마련 수단으로 대대적으로 판매됨.

구원의 불안

오컴 유명론(nominalism)이 남긴 신학적 불확실성. '내가 충분히 행했는가'라는 물음.

인문주의

에라스무스의 '원천으로(ad fontes)' 정신이 성경 원어 연구를 촉진.

인쇄술

구텐베르크 인쇄술로 루터의 글이 전례 없이 빠르게 확산 — 개혁의 '증폭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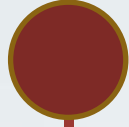
아비뇽 유수와 대분열 — 무엇이 무너졌나



1309

아비뇽 유수 (Avignonese Papa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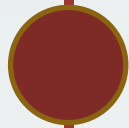
교황청이 로마를 떠나 남프랑스 아비뇽에 머문 68년. 일곱 교황이 모두 프랑스인이었다. 페트라르카는 이를 바벨론 포로(babylonica captivitas)에 빗대었고, 루터는 1520년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



1378

서방 교회 대분열 (Great Schism)

두 명, 한때는 세 명의 교황이 서로를 파문했다. 어느 쪽이 참 교회인지 유럽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교황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명제가 더 이상 자명하지 않게 되었다.



결과

교황청 재정 기구의 완성

로마의 영지 수입에서 떨어져 나온 아비뇽 교황청은 유럽 전역에서 돈을 걷는 체계를 만들었다 — 안나테(annates), 성직 임명의 교황 유보, 관면(dispensatio)의 수수료화.

핵심 — 알브레히트가 치른 거액은 예외적 타락이 아니라, 이때 만들어진 제도가 200년 뒤 정상 작동한 결과였다.

오컴 유명론(via moderna) — “최선을 다하라”의 함정

루터가 배운 신학은 나태를 가르치지 않았다. 오히려 최선을 요구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답변 제시 — 은혜의 계약

facienti quod in se est, Deus non denegat gratiam — “자기 안에 있는 바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보편자는 이름(nomen)일 뿐이므로, 이성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다리가 치워진다. 아는 길은 계시와 약속뿐이다.

지금의 구원 방식은 필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로이 정하신 계약(pactum)이다.

형식상 은혜가 먼저다 — 이것은 단순한 행위구원이 아니었다.

그래서 생긴 함정 — 검증할 수 없는 조건

나는 내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내 안에 없다.

비유 — “성실한 직원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좋은 제도 같지만, 성실의 기준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면?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 상태 위에 놓였다.

루터는 이 체계를 게을리 산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끝까지 밀고 갔다 — 그래서 절망에 이르렀다.

면죄부(indulgence) 제도의 신학

어떻게 작동했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의 보고(treasury of merits)'를 관리한다고 보았다.

신자가 공로 있는 행위(기부·순례)를 하면, 이 보고에서 은혜를 끌어와 참회의 형벌(penance)을 면제해 준다고 가르쳤다.

열심 있는 설교자들은 이를 마치 '마술'처럼 — 기부만 하면 영혼의 상태와 무관하게 용서받는 것처럼 — 선전했다.

죄 사함이 하나의 '경제적 거래(economic transaction)'로 전락하는 것을 루터는 깊이 우려했다.



테첼의 선전 문구

“헌금함에 동전이 짹짹 떨어지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나온다.”

도미니쿠스회 수도사 요한 테첼 (John Tetzel)

그는 또한 이 면죄부가 “세례에서 나올 때보다, 타락 전의 아
담보다 더 깨끗하게 만든다” 고까지 선전했다.

면죄부 뒤에 숨은 두 개의 계산서

루터가 상대한 것은 나쁜 설교자 한 명이 아니었다. 유럽에서 가장 힘센 두 세력의 사업 계약

브란덴부르크의 알브레히트 (Albert of Brandenburg)는 이미 두 개의 주교구를 갖고 있었으나, 독일 최고 요직인 마인츠 대주교직을 원했다. 그는 교황 레오 10세 (Leo X)와 협상했다. (푸거 (fugger)은행으로부터 2만 1천 두카트 대출-

합의 — 1만 두카트(ducats)로 합의, 교황은 알브레히트에게 자기 영지에서 대규모 면죄부 판매를 허가하되, 수익의 절반을 로마로 보내라는 조건 추가 (순금, 약 72kg ~ 73.5kg, 현 체감액 약 300억)

교황 레오 10세

성 베드로 대성당(St. Peter's Basilica) 완공 자금이 필요했다. 대분열과 전쟁으로 로마의 아름다운 건물들이 방치되어 있었다.

호엔촐레른 가문 House of Hohenzollern

독일의 패권을 노리던 가문. 알브레히트의 승진은 곧 가문의 정치적 도약이었다.

'특별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 8년간 부여

곤잘레스의 논평

“오늘날 로마 가톨릭의 자랑인 저 위대한 대성당의 단장이, 역설적이게도 개신교 종교개혁을 부추기는 데 일조했다.”

마르틴 루터 Martin Luther : 인생 여정

1483

아이슬레벤 출생. 광부에서 제련소 주인이 된 농민 출신 아버지 아래 엄격한 유년기를 보냄.

1505

법학의 길을 가라는 아버지의 뜻과 달리, 천둥번개 속 죽음의 공포를 겪고 성 안나에게 수도사가 되겠다 서원.

1505~

에르푸르트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입회. 구원과 심판의 문제가 삶을 지배함.

1512

신학 박사 학위 취득. 비텐베르크 대학 성경학 교수로 부임 — 이 자리가 그를 성경으로 몰아넣는다.

루터의 여정 ①

안펙통(Anfechtung): 해소되지 않는 죄의식

루터는 누구보다 성실했기에 더 깊은 절망과 좌절에 이름,
고해성사를 마치고 방을 나가자마자 아주 사소한 죄악이 떠올라 다시 고해신부에게 달려가기를 반복 (일화)

끊임없는 고해

기억하지 못한 죄가 있을까 두려워 몇
시간씩 자신을 살핌. 고해실을 나서는
순간 또 다른 죄를 떠올림.

금욕과 고행

위대한 수도 교사들의 가르침대로 몸
을 찢으나, 정죄의 두려움은 가시지 않
음.

'조건'으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자로 느껴짐. '충
분히 했는가'라는 물음이 그를 짓누름.

“나는 그분을 미워했다(I hate him!)” —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루터가 남긴 절망의 고백

옥탑방 체험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다

곤잘레스의 강조 — 그것은 어느 날 성경을 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를 읽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그 위대한 발견은 오랜 씨름과 쓰라린 고뇌 끝에 왔다.

1

1513 시편 강의

수도사로서 시편을 외우다시피 했던 그는 시편을 그리스도론적으로 읽었다. 시편 기자가 '나'라고 말할 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았고, 거기서 자기와 같은 시련을 겪는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2

막다른 골목

여기서 멈추면 '아버지는 순종을 요구하시고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혼한 이분법에 빠진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한 루터는 신성 안의 그런 분열이 용납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위로를 얻었으나 고뇌는 낫지 않았다.

3

십자가의 절규

셀리는 덧불인다 — 루터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에 사로잡혔다. 그리스도가 버림받으셨다니? 답은 그리스도가 죄인 된 인류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데 있어야 했다.

4

1515 로마서 강의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해답을 만난다 —

전 환 점

'옥탑방의 체험' — 로마서 1:17

루터를 괴롭힌 것은 바로 이 구절이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롬 1:17)

문제 — 이 본문은 복음이 '하나님의 의(iustitia Dei)'의 계시라고 말한다. 그런데 루터가 건딜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의였다.

곤잘레스— 루터에게 좋은 소식이란 오히려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시다', 곧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을 터였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의는 떼어 놓을 수 없이 묶여 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 자체를 미워했고, 이 한 절의 앞뒤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밤낮으로 붙들고 씨름했다.

답은 뜻밖이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벌하시는 의가 아니다. 의인의 '의'는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의롭기 때문도, 신적 정의의 요구를 충족했기 때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기에 주어진다.

루터의 회고

“그때 나는 다시 태어나,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간 듯 느꼈다.”

심판의 의에서 선물의 의로

루터가 두려워하던 이해

“하나님의 의” = 죄인을 심판하고 벌하시는 의

구원 = 믿음 + 선행 · 고해 · 공로

→ 아무리 애써도 '충분한가'라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음

루터의 발견

“하나님의 의” =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의

칭의(iustificatio) =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sola fide)

“믿음과 칭의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며, 죄인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다.” – 곤잘레스의 요약

전가된 의 vs 주입된 의

종교개혁과 로마 가톨릭의 칭의 이해는 근본적으로 갈라진다. 이 차이는 훗날 트렌트 공의회(5주차)에서 공식화된다.

개신교 — 전가 (imputation)

외부적·법정적(forensic) 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신자에게 '전가'하여 의롭다고 선언하심

칭의는 '되어감(과정)'이 아니라 '선언됨(사건)'

신자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simul iustus et peccator)

확신의 근거 = 내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가톨릭 — 주입 (infusion)

내부적 의: 하나님이 신자 안에 의를 '주입'하여 생애에 걸쳐 실제로 의롭게 만드심

칭의는 은혜와 인간 협력이 함께하는 '과정'

성례전과 선행을 통해 의가 자라감

트렌트: '의롭다 선언됨'을 개신교의 이단으로 규정

운동의 발발 ①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논제

무엇이 일어났는가

루터는 테첼의 면죄부 설교를 '나쁜 신학'으로 보고, 토론을 위한 95개 논제를 라틴어로 작성했다.

만성절 전야(All Saints' Eve), 대학 관례에 따라 비텐베르크 성(城)교회 문에 게시.

핵심 주장 — 면죄부는 ①죄책을 제거할 수 없고 ②연옥에 적용되지 않으며 ③거짓 안도감을 주어 해롭다.

그리고 더 나아갔다 — 제82조: 교황이 정말 연옥의 영혼을 풀 수 있다면, 성당 건축 같은 하찮은 이유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값없이 그리해야 하지 않는가? 제51조: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당을 팔아서라도 가난한 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의도와 결과

의도 학자들 사이의 학술 토론

결과 전 유럽을 뒤흔든 종교개혁의 도화선

*“그것이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불꽃이었다.”
— 셀리*

1517. 10. 31.

비하인드 ② — 첫 번째 논제는 왜 묻혔나

루터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성경 번역:

아무도 읽지 않은 첫 논제

실은 95개조가 루터의 첫 논제가 아니었다. 그는 몇 주 앞서 스콜라 신학을 비판하는 다른 논제들을 발표했다.

루터 자신은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여겼다 — 복음이 통념과 전혀 다르다는 주장이었으니까.

그런데 곤잘레스의 표현대로, 그 논제들은 대학 바깥에서 “거의 하품한 번 정도의 반응”밖에 얻지 못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95개조도 라틴어로 썼다. 앞선 경험 때문에 그는 이번에도 신학자들만 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해 값싼 판본으로 유포했다. 인쇄기가 순식간에 독일 전역에 퍼뜨렸다.

루터는 정중한 편지를 붙여 알브레히트 대주교에게 사본을 보냈다. 알브레히트는 그것을 그대로 로마로 보내며 교황의 개입을 요청했다.

곤잘레스의 한 문장 —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건드리는지 거의 알지 못한 채, 루터는 매우 힘센 영주들과 고위 성직자들이 설계한 수익 계획을 향해 말한 것이다.”

논쟁의 확대: 면죄부에서 권위로



1518

하이델베르크

아우구스티누스회 총회.

루터는 이단으로 화형당할 각오로 갔으나, 뜻밖에 많은 동료 수사가 그의 가르침을 지지했고 젊은 수사들의 열광



1518

아우크스부르크

추기경 카예탄(Cajetan)과 대면. 카예탄은 토론을 거부하고 철회만 요구: 교황 레오 10세(Pope Leo X, 1513~1521)



1519

라이프치히 논쟁

신학자 요한 에크(John Eck)와 18일간 논쟁. 루터의 선언:

— “공의회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교회도 교황도 신조를 세울 수 없으며, 그것은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여기서 그는 두 번째 확신에 이른다 — '오직 믿음'에 이어 '오직 성경(sola scriptura)'.

밤에 도망친 수도사, 그리고 교황의 정치 계산

한밤중의 탈출 (1518, 아우크스부르크)

루터는 황제의 안전 통행증을 믿지 않았다. 불과 한 세기 전, 똑같은 상황에서 안전 통행증을 어기고 얀 후스(John Huss)가 콘스탄츠에서 화형당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갔다 —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면 죽지 않으리라 확신하며.

카예탄이 자신을 체포할 교황의 권한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자, 루터는 밤중에 몰래 아우크스부르크를 빠져나와 비텐베르크로 돌아갔다.

교황이 루터를 정죄하지 못한 이유

1519년 막시밀리안 황제가 죽어 제위가 비었다. 유력 후보는 스페인의 카를과 프랑스의 프랑수아 — 둘 다 교황 레오에게는 위협이었다.

레오가 찾아낸 제3의 후보가 바로 작센의 현자 프리드리히(Frederick the Wise)였다. 다른 독일 제후들의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프리드리히는 루터의 보호자였다. 그래서 레오는 루터의 정죄를 미루고, 프리드리히에게 '황금 장미'를 선물로 보내며 관계 개선에 나섰다.

곧 — 유럽의 권력 다툼이 한 수도사의 목숨을 몇 년 더 벌여 주었다.

운동의 발발 ③

1520년: 세 편의 종교개혁 소책자

1

독일 귀족에게 고함

To the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

군주들에게 교회 개혁을 호소. 주교·수도원장의 부와 권력을 제한하고, 사실상 독일 민족 교회를 세울 것을 촉구.

2

교회의 바벨론 포로

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

로마의 성례 체계가 그리스도인을 '포로'로 잡고 있다고 비판.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 — 일곱에서 둘로.

3

그리스도인의 자유

The Freedom of a Christian

믿음에서 오는 내적 자유가 선행으로 열매 맺음을 논함. “선행이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못하나, 선한 사람이 선을 행한다.”

세 번째 소책자에서 루터는 수도원의 필요성을 제거했다 —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자기 소명(calling)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모든 유익한 소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거룩하다.

운동의 발발 ④

이단, 무법자, 그리고 영웅

1520. 6 교황 레오 10세, 교서 “주여 일어나소서(Exsurge Domine)”로 루터를 정죄 — “들짐승이 주의 포도원에 침입했나이다.” 60일의 회개 기한.

1520. 12 루터, 학생들 앞에서 교회법과 교황 교서를 불태움. “그들이 내 책을 태웠으니, 나도 그들의 것을 태운다.”

1521. 4 황제 카를 5세가 보름스 국회(Diet of Worms)로 소환. 철회를 요구받음. 루터는 라틴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답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내가 서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황제의 응수

“수도복을 입은 이 마귀가 옛 오류들을 하나의 악취 나는 웅덩이에 모아 놓고, 게다가 새 오류들까지 지어냈다.” — 카를 5세

납치극, 그리고 '융커 게오르크'라는 이름

보름스 이후 21일

카를 5세는 루터를 무법자로 선포. 21일의 안전 통행 기간이 지나면 누구든 그를 죽여도 처벌하지 않을 것,

보름스 칙령: 루터는 어디에도 없었다.

작센의 현자 프리드리히의 도움으로 도피, 그의 지시를 받은 무장한 무리 바르트부르크 성(Wartburg Castle)으로 납치:

치밀한 대목 — 프리드리히는 자기 지시로, 루터가 어디 숨겨졌는지 보고받지 않았다. 알지 못해야 추궁받을 때 답할 수 있었기 때문.

많은 이가 루터가 죽었다고 여겼고, 교황이나 황제의 명으로 살해당했다는 소문

융커 게오르크 (Junker George)

성에 숨은 루터는 수염을 기르고 하급 귀족 '융커 게오르크'로 위장한 채 약 1년을 지냈다.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자기를 염려하지 말라는 전갈을 보내고, 시간을 글쓰기에 쏟았다.

그 산물이 독일어 신약성경이다. 신약은 2년 만에, 구약은 10년이 걸렸다.

루터의 성경은 종교개혁에 힘을 더했을 뿐 아니라, 독일어와 독일인의 정체성 자체를 빚어냈다.

돌아온 이유 — 츠비кау에서 온 세 평신도가 자칭 예언자로 나타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 성경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멜란히톤이 감당하지 못하자, 루터는 복음 자체가 걸린 문제라 보고 귀환을 결심했다. 그는 프리드리히에게 알리며 덧붙였다 — 이번엔 당신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고 돌아간다고.

신학적 함의

하나의 발견이 무너뜨린 것들



사제 중재의 상대화

믿음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사제의 중보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성경의 최고 권위

교회도 교황도 아닌 성경이 신앙의 표준 (sola scriptura).



만인제사장설

교회는 성직 위계가 아니라 모든 신자가 제사장인 '믿는 자들의 공동체'.

종교개혁의 다섯 솔라 (Five Solas)로 요약됨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오직 믿음

Sola Fide

오직 은혜

Sola Gratia

오직 그리스도

Solus Christus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i Deo Gloria

정리

오늘의 핵심 용어 (원어)



iustitia Dei

하나님의 의 — 심판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입혀 주시는 선물.



facienti quod in se est

“자기 안에 있는 바를 행하는 자에게” — 루터가 벗어난 중세 말의 구원 공식.



simul iustus et peccator

의인인 동시에 죄인 — 선언된 신분과 실제 상태가 함께 참이다.

짜으로 외우면 쉬운 라틴어

형벌 / 죄책

poena / culpa

공로의 보고

thesaurus meritorum

전가 / 주입

imputatio / infusio

고뇌 · 시련

Anfechtung

근대적 방법

via moderna

'오직 믿음'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값싼 은혜의 위험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는 오해는 사도 바울 시대부터 있던 반론이다.

루터의 답 —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열매 맺는다.

칭의(선언)와 성화(변화)를 구분하되 결코 분리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하다.

목회적 함의

확신의 근거 — 신자의 구원 확신은 자신의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있다.

소명의 존엄 — 모든 정직한 직업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거룩하다.

자유와 섬김 — 믿음이 주는 내적 자유가 이웃을 향한 자발적 섬김으로 흘러간다.

독서 과제

셀리 25장 「주의 포도원에 침입한 들짐승」 · (참고) 곤잘레스 『종교개혁사』 루터 편

토론 주제

오늘날 개신교회가 '오직 믿음'을 값싼 은혜로 오해할 위험은 없는가? 루터의 발견이 삶의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토론방에 게시하시오.

다음 주 예고 — 급진적 종교개혁(재세례파)과 장 칼뱅의 개혁주의(셀리 26-27 장)